

광주 교통문화지수 전국 특·광역시중 1위

국토교통부 2018년 평가

전체 순위는 제주도 이어 2위

전년도 비해 12계단 상승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된 2018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전국 순위는 제주도에 이어 2위로, 지난해 전국 14위보다 12계단

상승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부가 해마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운전 형태, 보행행태 등 3개 영역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교통사고 발생정도 등 18개 항목을 조사·평가해 교통안전 의식수준을 지수화한 수치다.

광주시는 분야별로는 교통안전분야에서 19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운전형태는 45.6으로 서울에 이어 2위를, 보행형태

는 대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월 경찰청, 자치구, 교육청 등 11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교통문화지수 개선 협업팀을 구성했다. 또 매월 기관별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사항 공유,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교통안전 범시민 캠페인과 통합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보다 36% 감소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 송상진 교통건설국장은 "광주시의 교통문화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이 높아진 결과다"며 "올해는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만큼 교통안전 기초질서 끌어올리기에 주력해 전국 제일의 교통안전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무료 문자서비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상황과 대응요령 등을 알려주는 무료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7일 "무료 알림 문자 서비스는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노인양식시설과 학교, 언론, 자치구 등에 문자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동안 지속되면 '주의보'가 발령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3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되면 '경보'가 발령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 사회복지 동아리 모집. 광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사회복지학습동아리의 워크숍 모습.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

음식점 502곳 위생관리 컨설팅

광주시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비해 경기장 등지의 음식점 식품안전관리와 위생관리 컨설팅을 한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에 이은 이번 컨설팅은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전담반(10개반 33명)이 11일부터 22일까지 대회 관련시설 주변 음식점 50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전담반은 현장에서 ▲세균오염도검사기(ATP)를 활용한 음식점 위생상태 확인 ▲조리장 및 종사자 등 세균오염 여부 측정 후 계도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 ▲식품접객업소 기본안전수칙과 위생점검 체크리스트를 안내한다.

또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에 새로 제작된 '보관식품 표시사항' 스티커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친절 서비스 실천운동도 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시 방역대책본부 구성...구제역 총력대응

소독·살처분·이동제한 등 총괄

광주시가 구제역 확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일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대본)로 전환하고 구제역 총력대응태세에 들어갔다. 시는 구제역 위기대응 단계가 '경계' 수준이지만 더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대본을 구성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대본은 구제역 상황 종료 때까지 통제 조소 및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관내에 구제역 발생 유입시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을 총괄하게 된다. 수습주관부서인 생명농업과는 관내 현장 방역체계를 지휘 관리하고, 유관부서별 협업기능을 통해 방역 지원체계를 구제역 상황 종료 때까지 운영한다.

현재 시에는 소 170농가 4800두, 돼지 10농가 8300두, 염소 12농가 900두 등 총

192농가 1만400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지난해 8월-9월에 걸쳐 전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 이어 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관내 전체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한 긴급 추가 접종을 마쳤다.

시 농기센터 역시 비상방재단을 구성하고 방역방제기를 활용해 설 연휴기간 관내 축산관련 시설을 일제히 소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월 출시 지역화폐 명칭 '광주상생카드'로

광주시가 오는 3월 출시하는 지역화폐의 명칭을 '광주상생카드'로 정했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통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나설 예정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부터 13일 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명칭 공모를 실시해 접수된 2242건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광주상생카드'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명칭이 결정됨에 따라 카드 디자인도 조만간 확정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일반체크카드 대비 2배 이상 캐시백, 기아챔피언스필드 입장권 할인 등이 있다. 더불어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카드 결제수수료 0.2%를 지원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북구, 여성친화도시조성 대통령상 수상

광주시 북구가 여성가족부 주관 '2018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전국 8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양성 평등 지역사회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지난달 31일 선정됐다.

북구는 지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래 2016년 12월 재지정되면서 여성의 권익 증진, 성 평등, 돌봄·안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여성친화정책팀을 신설하고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정비했으며, 성 평등 교육, 양성 평등 사업 등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지원해 구정 전반에 성 주류화 제도를

정착시켰다. 또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여성친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일상생활 곳곳에 불편함을 찾아 모니터링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 아이디어 제안, 문제점 발굴, 개선사항 도출 등 성 불평등 요소 해결을 모색했다.

여성전문동아리, 여성지도자연수회, 여성친화 플래너 양성교육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부터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경력단절, 성폭력, 다문화 등 여성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여성행복응원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심아쿠가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북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자동화시스템 도입

광주시 북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다.

북구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면허증) 품질 향상과 주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면허증 발급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종이 코팅 형태로 발급된 면허증은 내구성이 약하고 자주 훼손돼 재발급에 따른 시간, 수수료 등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 면허증은 물기에 취약하고 들뜸 현상이 나타나는 등 소지하기가 불편하고 쉽게 훼손되는 반면 PVC 재질의 면허증 발급으로 재발급 횟수는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면허증 발급 시 용지 절단, 출력, 코팅 등으로 최대 30분까지 소요되던 발급 시간도 5분 이내로 짧아지게 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구에 등록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수는 약 1만여 개에 달하며 매년 800여 건 이상의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동구, 마을비전수립 4개동 약정식·워크숍

광주시 동구가 오는 12일 오후 2시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2019 마을비전수립'에 선정된 4개동과 약정식을 체결하고 워크숍을 진행한다.

마을비전수립 사업은 '주민이 마을전문가'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주민참여형 교육과정이다. 주민주도 마을협의, 협력

네트워크 등 마을자치 기반구축과 동 단위 공동체 브랜드발굴을 위해 추진된다.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마을비전추진단 '마을자원조사' '비전계획단' '비전학교' '마을총회' '마을비전 선포식' 등 다양한 참여·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용희 기자 kimyh@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골든타워 (중동 락희호텔, 홈플러스 근처)
- 대지지분 78평, 건물210평(실147평)
- 2012년 준공, 주차편리
- 6층중 4층 전체,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
- 주위에 업무용/상업용/근린생활시설등 혼재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은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

문의. 010-3605-5000